

1

이하선 종양의 임상적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윤 · 조창현* · 김원석

이하선 종양은 두경부 종양의 3% 정도를 차지하며, 그중 양성종양이 많게는 83%까지 보고될 정도로 예후가 좋지만, 안면신경과의 밀접한 해부학적 관계 및 술전에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인해 근치 및 재발방지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1985년 4월에서 1995년 4월까지 10년간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이하선 종양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70례의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남녀비는 1.2 : 1로 남성에서 약간 많이 발생했다.
- 2) 평균연령은 42.3세였고 전체적으로 3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양성은 30대에서, 악성은 40대에서 호발하였다.
- 3) 총 70례중 양성은 54례, 악성은 16례였으며, 양성종양중에선 혼합종이 45례(83.3%)로, 악성종양중에선 장액성표피선암이 8례(50.0%)로 가장 많았다.
- 4) 이환기간은 평균 33.5개월이었고, 1년 이하는 양성에선 46.3%, 악성에선 56.3%였으며, 내원당시 종괴의 크기는 양성은 평균 2.9cm, 악성은 평균 3.6cm으로서 악성종양이 양성에 비해 이환기간이 짧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5) 양성종양의 치료로는 수술적 방법만이 사용되었으며, 포재엽 절제술이 49례, 전엽 절제술이 7례에서 시행되었고, 술후 추적관찰이 대부분 수개월 이하였지만 재발된 경우는 없었다.
- 6) 악성종양의 치료로는 포재엽 절제술이 6례, 전엽 절제술이 8례, 전엽 절제술 및 경부청소술이 2례에서 시행되었으며, 이중 6례에서 술후 방사선치료가 시행되었다. 술후 추적관찰 기간은 평균 19.3개월이었고

1년이상은 7례에서 가능했으며, 술후 8개월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1례를 제외하곤 모두 무병상태였다.

7) 술후 합병증으로는 안면신경 마비가 16례, 창상 감염이 2례, 타액농공이 2례, 혈증이 1례로, 안면신경 마비 2례를 제외한 전례에서 자연소실되거나 치료되었다.

2

비흡연자에 발생한 두경부 편평세포암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최종욱 · 최 건 · 정관윤
박 찬 · 송종석 · 유동희

목 적 : 두경부에 발생한 편평세포암종은 대부분이 흡연자이며 비흡연자에는 발생빈도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있어, 이들에 대한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배 경 : 비흡연자에 발생한 편평세포암종은 흡연자에 비하여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그숫자가 적어 생물학적 특성과 병태 및 예후를 파악하는데도 미흡한 실정이다.

대상 및 방법 : 저자들은 최근 15년간 경험한 415례의 두경부 편평세포암종환자(비·부비동, 비인강, 외이도 및 중이강에서 발생한 예는 제외) 중 환자 및 가족들에 의하여 비흡연자임이 확인된 10례에 대한 임상양상을 분석하였다.

결 과 :

- 1) 1례를 제외한 9례가 내과환자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6세 이었고 발생부위별로는 구강 6례, 후두 2례, 하인두 2례이었다.
- 2) 치료는 전례에 대하여 병합요법을 시행하였으며, 8례는 현재까지 무병생존하고 있으며 이중 3례는 구제수술을 시행하여 만족한 구제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2례(설암 1례, 하인두암 1례)는 치료종결 후 2년내에 사망하였다.